



이숙자 남원시의원, 향교동 주민 숙원 해결

남원시 향교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광치천 둔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다.

광치천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주거 밀집지역 부근인 의종교에서 축전교 사이의 산책로로, 주민뿐만 아니라 등하교 학생들에게도 자주 이용되는 장소이다. 최근 우뚝돌 등 잡풀이 우거져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걷기에도 불편한 곳이 되었다.

이숙자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직접 현장을 나가 담당 부서와 함께 확인하며 해결책을 찾았으며, 그 결과 설계, 측량을 거쳐 잔디를 식재해 단정한 산책길로 탈바꿈시켰고 한 주민은 “갈끔해진 산책길을 보니 동네가 환해진 것 같으며, 가족들과 자주 나와 산책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숙자 의원은 “예산의 한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에 잔디를 식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북전주농협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북전주농협 농가주부모임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열고,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농가주부모임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직접 재배한 고추, 쌀, 메주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을 담그며 진행됐다. 정성스럽게 만든 고추장은 관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에 전달돼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우광 조합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진보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기탁

(유)진보팜 전찬기 대표가 지난 13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전찬기 대표는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깨끗한 환경, 세계 태권도 성지, 산과 들이 아름다운 자연특색시,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의 매력에 빠졌다”라며 “무주군에 전달된 고향사랑기부금이 무주를 가꾸고 그 안에서 사는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요긴하게 쓰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주시에 위치한 있는 (유)진보팜은 2004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전문 의약품 도매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무주군에는 2023년과 2024년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훈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황산면지사협, 맞춤형 물품지원사업 추진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준식)가 13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16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생활환경에 맞춘 ‘맞춤형 물품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가정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스레인지, 밥솥, 청소기, 믹서기, 전기레인지 등 필요한 가전제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내 돌봄 체계 강화를 목표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물품 지원과 함께 생활실태를 점검하며 추가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이뤄졌다.

신수미 황산면장은 “이번 맞춤형 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한 분 한 분의 생활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방공공기관 발전·기업지원 우수기관 인정받아

전북테크노파크, 행안부·중기부 장관상 동시 수상 쾌거

전북테크노파크가 지방공공기관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수상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력 아래 김관영 도지사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철학을 실천해온 결과로, 공공기관의 혁신경영과 지역 산업 동반성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전북테크노파크가 기술 인프라 확충, 디지털 전환,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이룬 가시적 성과에 주어졌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로 6천억 원대 투자와 4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내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도내 대학과 연계한 청년 취업 지원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은 전국 테크노파크 중 ‘기업지원 우수사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표 사례로 아진전자부품(주)의 사업구조 전환 지원이 꼽혔다. 2010년부터 기술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한 결과 이 기업은 매출이 9배

/오상근 기자



이상 성장했고 신규고용도 확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시스템을 공고히 해왔다. 특히, 테크노파크는 전북의 CTO(Chief Technology Office) 기관으로서 도정 정책과 산업현장의 기술 수요를 긴밀히 연결하며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이 산다’는 도지사의 철학을 실천해왔다.

새만금개발청,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 대상’ 수상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이 ‘제18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종합대상(국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KICO)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국내 디지털 분야에서 권위있는 소통·마케팅 시상식이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통 역량과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평가단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수상은 새만금개발청이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 새만금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친화형 콘텐츠 소통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방송인 ‘홍현희’가 출연하는 ‘새만금 상륙작전’, 영화평론가 ‘비이나’가 진행하는 ‘새만금 극’, 새만금청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콘텐츠 ‘휴먼다큐 새만금이 좋다’ 등이 유튜브에서 구독자들에게 호응을 받아 전년동월대비(기준 25.10.) 조회수가 178%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지역 축제에서 품질대란을 일으킨 새만금 캐릭터를 활용한 팬덤 콘텐츠와 누구나 쉽게 새만금



정책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뉴스톱’, ‘새만금 RE100’, ‘메가즈’ 등의 다양한 콘텐츠들로 큰 관심을 받아 전년동월대비(기준 25.10.) 팔로워 수가 177% 상승하는 쾌거를 올렸다.

블로그는 다른 SNS 채널과 차별화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새만금의 오늘과 내일을 설명하는 ‘만금칼럼’과 입주 기업인에게 직접 새만금의 현재를 듣는 인터뷰 ‘새만금인’ 등 지난 10월, 25년 반을 목표를 240% 달성하는 등 높은 성적을 받았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대한민국소통어워즈’ 3년 연속 대상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는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기타공공부문 소셜미디어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2023~2025) 수상으로 ‘소통 3관왕’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디지털 소통 역량을 평가하는 대표 시상으로, 이용자와의 관계, 정보 전달력, 신뢰 기반 콘텐츠의 완성도를 종합 평가한다.

공사는 올해 평가에서 85.73점(AAA등급)을 받아 공공기관 및 10대 기업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SNS를 일방적 홍보 채널이 아닌 국민과 함께 새

만금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소통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대학생이 직접 참여한 버디버디 프로젝트, AI 기술을 활용해 공사 사업의 비전과 소식을 전하는 영상 콘텐츠 및 공모전, 공사직원과 지역 출신 연예인이 함께 출연한 예능형 유튜브 시리즈 ‘4인입니다’, 새만금 환경정화 온라인 캠페인 ‘클린업 새만금’ 등이 대표작이 예이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 분야 등 주요 사업은 단순 홍보가 아닌 신뢰 중심의 정보 제공과 참여형 소통 방식으로 운영해 공공정보를 친숙하게 전달하면서 공사의 브랜드 신뢰도와 SNS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이만호 기자



전주 우아2동 지사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선)는 13일 주민센터(동장 민용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어 관내 경로당 24곳과 취약계층 80세대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반찬을 지원하며 이웃의 식생활 안정을 돕고 있는 ‘사랑의 반찬나눔행사’의 연장선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의 일환으로 대상 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종선 우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준 위원들과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교대,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2일 김오수 前 검찰총장(중앙법무 변호사무소 대표변호사)을 초청해 학생 중심성장 리더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무호남 사무국가(부제: 공직자 총무공)’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김오수 前 검찰총장은 총무공 이윤신 장군이 위기 속에서도 원칙과 책임을 지켜낸 리더로서의 자세를 강조하며, 진정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바탕으로 정의와 신뢰를 지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투명성과 책임,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가치를 제시하며, 예비교사들이 미래의 교육공동체를 이끌 리더로서 이러한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임기욱 군산대총장 직무대리, 연구시설 새만금 유치 동참

국립군산대학교 임기욱 총장 직무대리가 미래 청정에너지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군산 유치를 기원하며 추진 중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13일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국립군산대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부지 유치를 위한 공감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청정에너지 강국 실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군산이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향후 ‘핵융합·플라즈마 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해 핵융합 장비 실험실과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농협, 수확철 일손돕기로 ‘농심천심’ 가치 실현

전북농협은 13일 일일을 관내 농가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 가치 확산을 위한 수확철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농협과 일손농협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콩 수확 작업을 돕고,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봉사자들은 밭에 방치된 폐비닐과 각종 농자재를 직접 수거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인력난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던 농가의 콩 수확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정환 본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일손돕기에 나섰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농심천심’의 가치를 실현하며 농업인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에도 농촌 일손돕기 캠페인, 인력중개센터 운영, 보라비봉사단 합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운봉읍, 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교육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11월 12일 공안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순환 실천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이은주 읍장은 공안마을을 찾아 쓰레기 배출용기와 재활용품을 직접 활용에 분리배출 시연을 진행, 주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품목 구분 방법으로, 플라스틱, 유리, 비닐류, 종이, 스티로폼 등 품목별로 올바른 배출 요령을 설명하고, 재활용 불가 품목과 배출 시 유의 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실제 분리배출 현장을 재현해 보여주는 실습형 교육으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 주민은 “버리기만 하면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워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주 읍장은 “주민 여러분이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생활속 환경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방문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